 미래창조과학부	보 도 자 료		http://www.msip.go.kr
보도일시	2015. 4. 29.(수) 석간(온라인 4. 29. 12:00)이후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15. 4. 28.(화) 16:00	담당부서	기술기준과
담당과장	성향숙(061-338-4600)	담당자	고흥남 주무관(4620)

조난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파악으로 신속한 수색·구조 가능

- 국립전파연구원, 선박의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 연동 기술기준 개정 -

- 미래창조과학부 국립전파연구원(원장 최영진)은 선박 조난시 구조 신호와 함께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발신하도록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하여 4월 30일 고시한다고 밝혔다.
- 『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』은 선박에 탑재되는 다양한 무선설비에 대한 전파특성과 성능을 규정하고 있으며,
 - 금번 고시 개정안은 국민안전처,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를 포함한 관련 협회, 산업체 등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기술기준이 마련되었다.
 - 기술기준의 주요내용은 해상에서 선박 조난시 구조신호와 함께 조난 위치를 구조팀에 자동으로 발신할 수 있도록 선박에 탑재된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외부 전자위치측위장치(GPS)가 연동하도록 하고 위치정보의 표시 정밀도를 도-분-초 단위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.

- 이전에는 GPS와 연동이 되지 않은 선박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늦어져서 선박 조난 사고 시 수색·구조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으나,
- 금번 조난선박의 위치정보 발신 연동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, 선박 조난 사고시 선박의 위치가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되어 신속한 구조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 끝.

※ 참고자료 : 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 연동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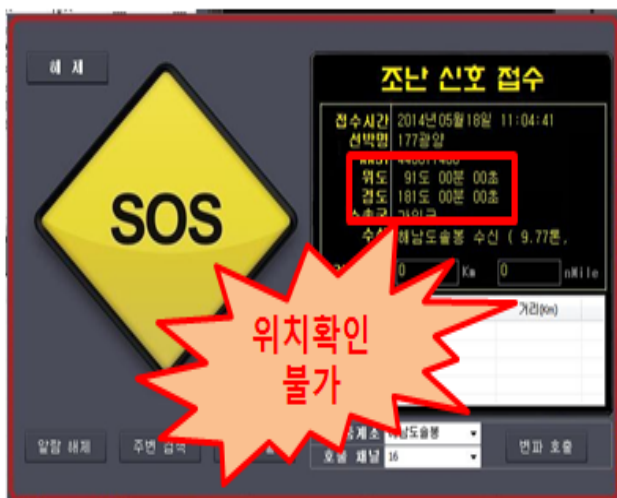
참고

초단파대 무선설비와 GPS 연동 시스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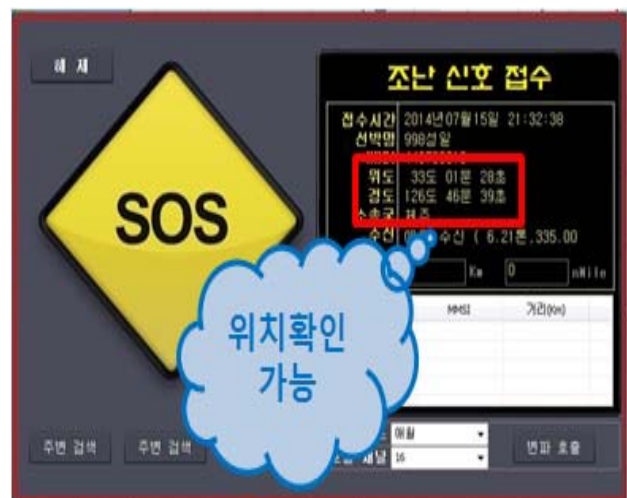
- 선박은 조난통신설비를 구비하여 해상사고시 선박 정보, 위치 등을 인근 해안국 및 타 선박에 송신하여 신속한 수색·구조에 활용
 - 하지만, 일부 어선은 조난통신설비의 일종인 초단파대 무선설비(VHF-DSC)와 선박의 위치를 송신할 수 있는 전자위치측위장치(GPS)가 연동 되지 않고 있어 사고 선박의 신속한 수색·구조에 어려움 발생

※ 초단파대 무선설비(VHF-DSC, 디지털선택호출장치) 시스템

해상인명안전협약(SOLAS)과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(GMDSS)에 따른 의무탑재 조난통신설비로서, 선박이 타 무선국을 호출할 때 선택적인 기능을 가지고 호출할 수 있으며, 선박 조난 시 긴급버튼(DISTRESS)을 누르면 선박의 정보 및 실시간 조난 위치를 표시하고 음성통신이 가능한 시스템(156.525MHz 주파수 사용)



< GPS 미연동 조난선박 >



< GPS 연동 조난선박 >